

광주 50대 女교수 의문의 피살

도심 자택서 목졸린 채 숨져... 연락 두절 나흘만에 발견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부녀자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도심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여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오후 3시에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맞은편 주택가 1층에 사는 광주 모 대학 교수 김모(여·52)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는 것을 2층 세입자 이모(8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의 친구가 '나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와 1층에 내려가 봤더니, 방문을

연 순간 씩는 뱀새와 함께 김씨가 이불에 둘러싸인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목 부위에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시신은 상당히 부패(사망시기 3~4일 전 추정)된 상태였다. 또 김씨의 지갑은 열린 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방안 곳곳에선 다른 사람의 족적이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3일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뒤 동료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헤어진 이후 연락이 두절됐었다.

김씨는 또 수년 전부터 서울에 사는 남편과 자식 등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해 왔으며, 주말마다 서울

에 올라가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목 부위에 스카프가 감겨 있었던 점으로 미뤄 누군가에 의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돌연사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히 바깥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된 흔적이 있고 혈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강·절도범이 침입, 김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김씨 가

족과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경찰 광천치안센터에 수사분부를 설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김씨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숨진 김씨가 원한이나 채무 등 개인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강·절도범에 의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잇단 강력사건 서부경찰 초긴장

광천·농성동 살인만 3건
유형업소 밀집 방법 취약

광주서부경찰 관할인 서구 광천동과 농성동 일대에서 강력 사건이 잦은 이유는 방법이 비교적 허술한 주택 또는 유흥 밀집지역이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많은 데다 노래방·유흥점·모텔 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광천동과 농성동의 경우 버스 종합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 도주로 확보가 용이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광천·농성동의 경우 노후 주택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점 등도 방범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중등 임용고시 '말뼉'

음악과, 시험지 배부 잘못 등 전형 실수투성이

뒤늦게 모두 만점처리... 탈락수험생 "소송 불사"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일부 과목이 감독관의 실수로 변칙 처리되는 등 시험 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용고시에서 탈락한 일부 수험생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남도교육청과 임용고시 수험생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진 전남도 중등 임용고시 음악과목 시험에서 첫째날 진행된 3차 실기(교수학습지도안 작성)도중 감독관의 실수로 보조자료, 질문·답안지가 수험생 일부에게만 배부됐다.

악곡시창(視唱) 시험에서도 일부 수험생이 "제시된 5곡 가운데 1곡이 현재 고교 교과서 내 실린 곡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곡은 현 7차 고교 과정이 아닌 6차과정(1996~2002) 교과서에 수록된 '지난날'이란 곡이다. 또 교육청은 시험 공고안에서 고교 교과서 내 5곡중 한 곡을 무작위 뽑아 부르도록 했다.

7명을 뽑은 음악과목에는 총 80명이 응시, 1차(필기), 2차(논술)를 거쳐 12명이 최종 3차 실기 등을 치렀으며, 이들 12명 중 '지난날'은 3명이 불러 1명만 합격했다.

당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지난날을 부른 3명 모두 크게 당황했으며, 합격자 1명도 힘들게 노래를 불렀으나, 1, 2차 시험 점수가 높아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성수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감독관의 착오로 실수는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거쳐 똑같은 조건으로 만점 처리한 만큼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악곡시창부분도 모두 고교 수준의 곡인 만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중 청소년 "도자기 만들었어요" 광주 남구청이 주최하고 (사)맥치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주관한 2009 한·중 청소년 교우회 놀이 민속캠프(5~9일)에서 6일 광주 전통문화체험관을 찾은 청소년들이 도자기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폭 우려 '방사선 조사기' 찾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아파트 상가 앞서 분실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는 '방사선 조사기'가 분실됐다.

6일 금호기술검사(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 상가 건물 앞에 놓여 있던 방사선 조사기(사진)가 분실됐다.

금호기술검사 직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화물차에서 외형이

납과 철로 제작된 가로 29cm·세로 24cm 크기(무게 25kg)의 방사선 조사기를 상가 앞에 내려 놓았다.

이어 다른 공정을 준비하는 2~3분 사이에 종이상자에 담겨 있던 방사선 조사기가 사라졌다.

인근 상가의 한 주민은 "지나던 택시가 상가 앞에 놓인 폐지와 방사선 조사기가 담긴 종이박스를 버려진 종이로 생각했는지 트럭

에 싣고 갔다"고 말했다.

금호기술검사 직원들은 방사선 조사기가 종이상자에 담겨 있어 택시 기사가 버려진 폐지더미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 같으며 보도를 보는 즉시 돌려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 조사기는 병원의 X레이 촬영이나 철 관련 자재 및 제품의 밀도·용접상태 등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비파괴촬영기이다. 이 기기는 납과 철로 외부가 봉합돼 있어 안정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충격에 따른 파손이나 기기 접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방사능 피폭이 우려된다.

금호기술검사 김영채 대표는 "방사선 조사기는 외부가 훼손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습득하거나 발견한 분은 곧바로 연락(062-362-9118·9)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희중기자 chae@연합뉴스

포근한 주말

곳곳 안개...운전 조심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포근한 가운데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기울여야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7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맑겠으나 낮 한때 구름이 많겠다"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아침 사이에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13도.

휴일인 8일도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대체로 맑겠다. 광주의 기온은 1도~13도로 평년보다 6~7도 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고검 차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 새 위원 위촉

정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주경복 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이유로 최근 위원회 해촉을 결정한 데 이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새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후임에 광주고검 차장검사 출신인 고영주(60) 변호사가 지난 4일 위촉됐다. 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기 2년의 새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선대와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등 4개 대학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5일 오후 서울 종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경복 위원에 대한 불법 해촉 결정 철회 ▲임시이사 재파견 음모 중단과 정이사 선임 ▲4개 대학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른 폐지이사 선임 등을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현안인 위원장 선임을 이날 19일에 열릴 회의로 연기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사분위가 조속히 위원장을 선임해야 대학 정이사 선임 등 조선대 법외 정상화 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면서 "새롭게 위촉된 고영주 위원은 광주고검 차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조선대 문제점과 제단 등에 잘 알고 있는 만큼 조선대 정이사 체제 구축,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고은석씨

약사고시 수석합격



조선대 약학과 고은석(25)씨가 최근 약사 국가시험에서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고씨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60회 약사 국가시험에서 300점 만점에 285점을 얻었다. 조선대 출신이 전국 수석의 영예를 안은 것은 지난 1965년 문영희 조선대 명예교수 이후 두번째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고은석씨는 "졸업하면 약국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번리사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3년 동안 공부해서 위업을 이루겠다"고 선처를 호소, 포부를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내연녀 가계서 가스폭발 위험 난동

상다발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불참해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청은 6일 내연녀가 운영하는 포장 마차에서 그릇 등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문모(60·광주시 북구 풍암동)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후 5시30분경부터 1시간에 걸쳐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박모(여·63)씨가 운영하는 S포장 마차에 들어가 LPG가스통(20kg)에 불을 수차례 붙이며 박씨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문씨는 경찰에서 "최근에 (박씨)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났다"며 "갑판 주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는 데다 건강도 좋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7분 해질 18시 07분 달돋이 15시 19분 달질 05시 27분

나들이 가기 좋은 날 대체로 맑겠으나 낮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조금	1/13C
목포	구름 조금	1/11C
여수	맑은 뒤 흐림	4/12C
완도	맑은 뒤 흐림	1/12C
구례	맑은 뒤 흐림	-4/12C
해남	맑은 뒤 흐림	-3/13C
장흥	맑은 뒤 흐림	-3/13C
고흥	맑은 뒤 흐림	-2/13C
순천	맑은 뒤 흐림	1/13C
영광	맑은 뒤 흐림	0/10C
진도	맑은 뒤 흐림	-1/12C
전주	구름 많음	0/10C
남원	구름 많음	-3/12C
속초	구름 많음	5/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	0.5~0.5m	목포 12:41	05:10
안남 앞바다	서~북	0.5~1.0m	서~ 18:15	18: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0.5~0.5m	여수 07:45	01:00
남해 동부 앞바다	서~북	0.5~1.0m	여수 19:50	13:56

◇주간 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13	3/11	5/12	3/12	5/12	6/11